



식량자급률 향상 대책 마련과 작물보호제 역할 및 중요성 기대

제27회 차기회의 2011. 11. 2 ~ 4, 대만에서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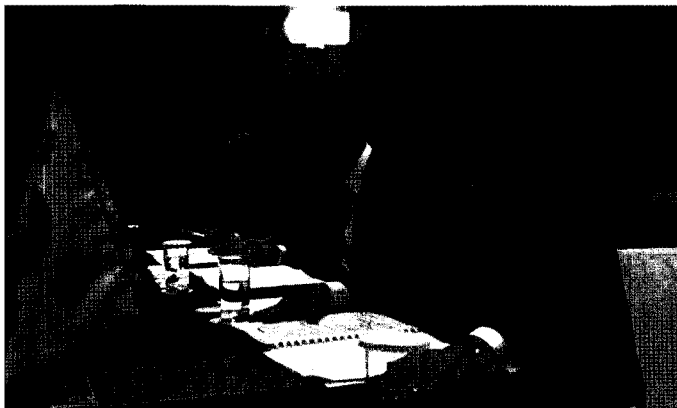
제26회 한·일·대 3국 작물보호협회 회의가 지난 10월 14일(목)부터 15일(금)까지 이틀간 서울 신라호텔에서 성황리에 개최됐다.

한국작물보호협회(회장 염병만)가 주최한 이번 회의에는 각국 공식 대표단 30여명이 참석했다. 한국작물보호협회(KCPA)는 염병만(廉炳晩) 회장의 14명, 일본농약공업회(JCPA)는 Shukichi OHUCHI(大内脩吉) 회장의 8명, 대만구식물보호공업동업공회(TCPIA)는 Liao, Carl L.H(廖年亨) 이사장의 8명이 참석했다.

3국협회 회장단은 인사말을 통해 금년 세계적인 이상기후로 농작물 피해가 증가하고 병해충 발생이 저조해 작물보호 사업전망이 불



▲ 좌로부터 TCPIA Carl L.H(廖年亨) 이사장 KCPA 염병만(廉炳晩) 회장 JCPA Shukichi OHUCHI(大内脩吉) 회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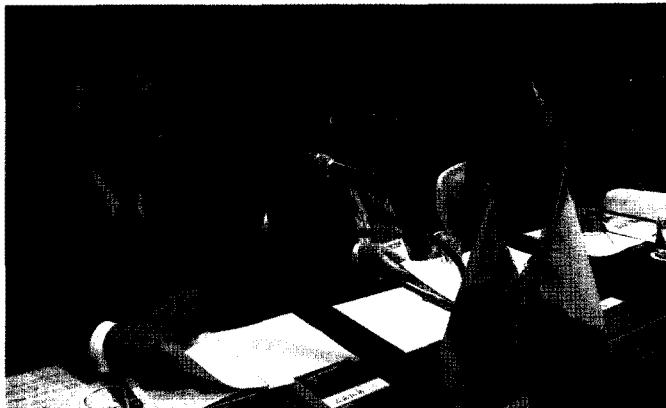
▲ 본회의장의 각국 대표단

투명함을 염려하면서도 세계적인 식량부족에 따른 식량자급률 향상 대책 마련에 공통된 인식을 같이하고 작물보호제의 역할 및 중요성은 더욱 커질 것으로 기대했다.

이번 회의는 본회의 제안으로 14일 오전에 “농산물 안전성과 3국의 잔류허용기준 과제-Import Tolerance와 작물그룹화”라는 공동안건에 대해 전문가 그룹회의(Working Group Meeting)가 열렸다.

본회 전병철 국제위원회 위원장(바이엘크롭사이언스(주) 상무이사)의 사회로 진행된 전문가 회의는 3국에서 모두 8명의 잔류분야 전문가가 참석했다.

국가별로 보면 한국은 「MRL in Korea」에 대해 전병철 국제위원회 위원장이 발표했으며, 일본은 Mitsuo Hattori 기술위원회 위원장(Nippon Soda)이 「Overview of the System for Establishing Import MRLs in Japan」에 대해, Masaki Hara 기술위원회 안전성평가팀장(Sumitomo Chemical)이 「Current Situation of Crop Groupings in Japan」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마지막으로 대만은 아시아대학 Kuo, Ker Chung 박사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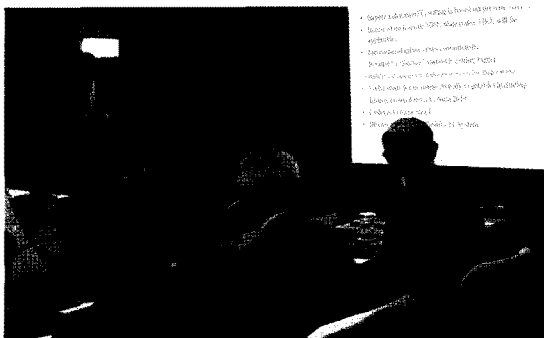


「MRL harmonization—difficult but possible」에 대해 발표했으며 국가별 주요 내용에 대한 종합토론이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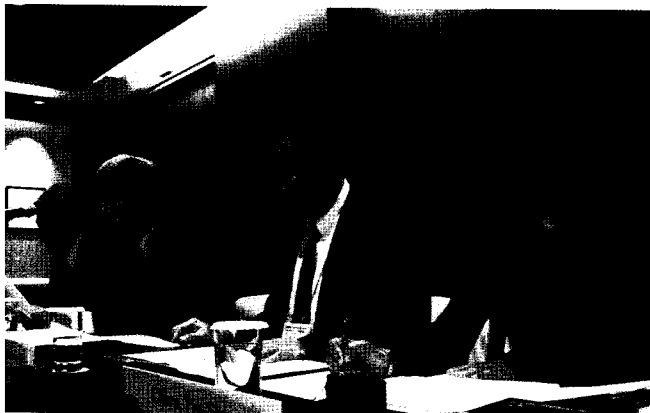
이후 오후에 열린 회장단 회의에서는 본회 조상학 상무이사 진행으로 국가별 5명씩 총 15명이 참석한 가운데 각국의 작물보호시장과 정책동향에 대한 정보교류와 차기회의 일정 등에 대해 논의했으며 오전의 전문가 그룹회의 결과 보고도 있었다. 국가별 주요 정세 보고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

■ TCPIA

대만협회는 2009년 농약판매량은 8,589톤(a.i.)로 6,932백만위안 이었으며 농약등록은 유형별로 524품목이 등록되어있다고 밝혔다.



▲ WG회의의 주요 결과를 보고하는 국제위원회 김경성 위원(동부한농 상무)



또한 농약관련 법규 개정내용을 보면 농약 허가증 신청 및 심사발급시 중앙행정기관이 국내·외 농약공장에 대해 현장 조사를 진행하도록 했다. 농약적용확대를 위한 농약포장 시험준칙을 개정하여 시험데이터 요구와 등록 비용이 줄어들게 됐다.

관련 정책동향은 농산품 안전의 완벽한 관리체계를 수립하고 농약잔류 감시 감독을 전면적으로 강화했다. 또한 소비자 건강 보장을 위해 안전인증 추진을 가속화하여 GAP안전 채소 및 과일 인증마크 제도를 확대하고 굴과 실과리 등 작물의 중대한 전염병 및 병해충의 공동방제를 추진했다. 정세보고 발표후에는 소면적 작물의 농약 확대사용에 대한 보고도 있었다.

■ JCPA

일본 농약학회 농업연구개발부회장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농약의 60%가 65세 이상으로 노령화가 가속화되고 있는 것으로 발표했다. 또 농지는 감소하고 장지이용률이 낮아지고 있으며 농가소득이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밝혔다.

2009년 전체농약시장은 336,357백만엔으로 이중 제초제가 115,344백만엔, 살충제가 100,203백만엔, 살균제가 75,606백만엔 등으로 나타났다.

농약산업 과제로 △환경, 안전에 대한 규제 강화 △엔화 강세에 따른 기업의 수익성 저하 △재등록 및 해외 규제 영향으로 농약등록에 대한 새로운 비용 증가 △등록요건 증가와 규제의 국제화로 등록평가기간 장기화 △농약은 위험하다는 보도 등에 대한 편견에의 대응 △소비자의 불안감에 대한 과학적 안전성 설명 등을 선정했다.

또 일본농약공업회의 과제로는 △농약등록 제도 개정에 대한 대응 △기존 재등록 유지와 신규등록기간 단축 △안전규제 등(항공살포, 비농경지)에의 대응 △해외 농약행정동향 대응 및 해외관계단체와 연대 △농약적정사용 계몽 △소비자 대응(피블리시티 등) △안전성 계몽 촉진 △기축 대사시험, 사료작물 수출입 농산물 잔류기준 대응 △농업환경 변화와 행정 변화에 대응 강화 등이라고 밝혔다.

■ KCPA

본회 정창국 기술위원회 위원장(한국삼공연구소장)은 정세보고 발표를 통해 2010년 농약관련 주요 정책 동향과 개정된 농약관리법 주요 내용, EU와 미국 폐지농약 특별재평가 등에 대해 설명했다.

한편 제27회 차기 회의는 대만구식물보호공업동업공회(TCPIA) 주최로 2011년 11월 2일부터 4일까지 대만에서 개최될 예정이다.